



워트 이달 코스닥 상장..."세계적 공정환경 기업 도약"

송고시간 | 2023-10-11 14:04



박승배 워트 대표이사

[IFG파트너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이달 코스닥 상장을 앞둔 워트는 11일 해외 시장 진출과 신사업 추진 등을 통해 세계적인 공정환경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워트는 이날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장 계획과 비전을 발표했다.

2004년 설립된 워트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 필요한 공정환경제어 장비를 개발해 생산하는 기업으로 초정밀 온습도 제어장비(THC), 공기정화장치(FFU) 등이 주력 제품이다.

워트는 상장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중국 등 해외 시장 진출과 차세대 THC 관련 신사업 추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승배 워트 대표이사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공정의 고도화가 진전되면서 공정환경제어 시장 또한 꾸준히 확대될 것"이라며 "생산시설 확충과 연구개발(R&D) 등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공정환경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번 상장을 통해 400만주를 공모하며, 희망 공모가를 5천~5천600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른 공모 금액은 약 200억~224억원이다.

워트는 오는 12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16~17일 일반 청약을 거쳐 오는 2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키움증권이다.

mylux@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10/11 14:04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